



어린이 꾸짖는 법

어린이가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꾸짖는 것이 바람직한 어른의 태도일까? 어린이가 잘못했을 경우, 어린이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을 꾸짖어 같은 행동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이다. 흔히 부모들이 아이를 꾸짖을 때, 앞 뒤 생각 없이 꾸짖다 보면 인격을 꾸짖는 경우가 많다. 즉 실수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꾸짖음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방법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1. 위협형:** "다시는 그런 짓 했다간 없어!" 등의 말을 통해 무서운 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잘못을 막아보려 한다.
- 2. 비교형:** "네 동생을 좀 보라. 넌 어째 이 모양이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수치심을 자극해서 분발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 3. 나열형:** "아니 넌 어쩌자고 그러니! 꽃병을 깨뜨리지 않냐. 자전거를 망가뜨리지 않냐..." 하며 어린이가 저지른 잘못을 일일이 열거한다.
- 4. 조소형:** "잘못 났다! 어디 좀 더 해보지!"라고 비꼬면서 꾸짖는다.
- 5. 변덕형:** 일관성이 없이 기분대로 때라 그 때 그 때 혼을 낸다.



이상과 같은 꾸짖는 모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어린이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꾸짖는단 말인가? 그에 대한 어린이를 꾸짖을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가 난 상태에서 꾸짖거나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 즉, 격분된 상태로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일러 주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잘못된 행동을 즉시 고쳐주는 일이다.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거나 꾸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잘못을 모두 쌓아 두었다가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들추어내는 일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셋째, 밖으로 나타난 행동만을 보지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자식인가?

How come humans are God's children?

人はなぜ神の子供ですか?

● 이 세상의 자연법칙은 유전법칙이며, 유전법칙은 피의 법칙이다.

A law of nature is that of heredity, and the law of heredity is that of blood.

この世の自然法則は遺伝法則で、遺伝法則は血の法則です。

● 개는 개를 낳고, 토끼는 토끼를 낳으며,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다.

Puppies are dogs, and rabbit's offspring are rabbits, and monkey's children are monkeys.

犬は犬を産んで、ウサギはウサギを産み、猿は猿を産みます。

●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다.

Similarly God's children are also God.

同じように神様の子供は神です。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첫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이다.

Therefore, we are God, because Adam and Eve, our first parents were God(Romans 8:16).

したがって私たちの初めての先祖、アダムとイブが神様なので、私たちは神です。*

인류는 한 형제,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속담 속의 영생학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는 뜻의 속담이다. 이 세상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따라서 결과를 보아야 원인을 알 수 있다. 결과가 사망이면 마귀(사망의 신)요 영생하면 하나님(영생의 신)인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살면 죽을 수 없다. 죄의 근본은 '나'라는 의식이요 욕심이요 원죄다. 결국 나라의 의식이 '내' 안에서 사자귀신을 모시고 살다가 결국 사망한다. 하지만 세상은 이 놀라운 인류의 비밀은 모른 채 미시적이고 그럴듯한 죽음의 원인들만 논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들은 여전히 '죽어 천당'을 부르짖고 있다. 성경에도 힘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라는 마귀를 '내' 안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인간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이 되어야 천국(원시반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진정한 천지개벽은 지구적인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100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사망의 연기는 '나'라는 의식의 굴뚝에서 생긴다. 자존심이 곧 '나'라는 의식이다. 자존심이 열기를 일으키고 욕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악의 뿌리이며 사망의 근원이다. 자존심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악이다.

자존심이 강해지는 마음작용에 의해서 피가 혼탁해진다. 혼탁해진 피는 마음작용을 더욱 좁고 각박하게 만든다. 실상가상으로 개인의 자존심은 개인의 고통만 일으키지만 집단적인 자존심은 집단적인 싸움(전쟁, 테러)까지 일으킨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인류 전체를 죽이고 파멸로 이끌고 가는 원흉이다. 육천년간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서서 인간의 마음을 쪼개고 서로 죽이려 했던 철천지원수다.

중생들이여! 사망의 연기를 막고 싶은가? 승리제단에서 딱 21일! 영생공부를 해보라! 그러면 진정한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표준어 제대로 쓰기①

이번 호부터는 잘못 알고 있는 표준어를 바로 잡아보도록 한다. **예문1)** 정부가 수도권 전철 지하화에만 6조원을 (꼬리박았다/풀아박았다).

위 예문에서 표준어는 '꼬리박았다'이다. '꼬리박다'의 의미는 '거꾸로 내리박다.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 버리다'인데 자칫 '풀아박다'가 표준어인 양 잘못 사용되고 있다. 즉, '풀아박다'는 실상가상으로 개인의 자존심이 될 수 없다. 사투리가 표준어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어의 근거가 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따라야 하므로, 그 방언이 서울에서 널리 오래 사용되면 뒤늦게 표준어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어영부영하다'인데 이는 전라도 방언에서 표준어로 인정된 드문 경우에 속하는 단어이다.

예문2) 그 사람은 (좋아할래야/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다.

정답은 '좋아하려야'이다. '~할래야'는 비표준어이고 '~하려야'가 표준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헛갈리는 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들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1위가 구라(거짓말), 2위가 애매하다(모호하다), 3위가 기스(상처)이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올바른 국어 표현을 구사하도록 해야겠다.

틀리기 쉬운 말(옳은말/틀린말)

거친/ 거칠은 괴로워/괴로와 날파란/넙파란 며칠/몇일 목메다/목메이다 뽕뽕어리/뽕뽕아리 무/무우 빌려오다/빌어오다 사글세/샬월세 삼가어/삼가해야 셋째/세째 신출내기/신출내기 우레/우뢰 웃어른/웃어른 으레/으레 아지랑이/아지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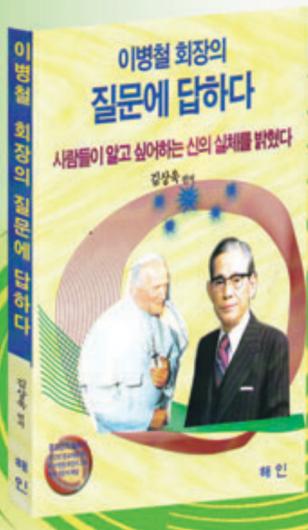
이승우 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치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천국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점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